



포켓터블 TV

金 貞 欽 / 高麗大教授·理博

늘어나는 TV 所有臺數

10年前만 해도 TV는 貴重品이었다. 한집에 한 대밖에 없었고, 보통집의 경우 財産目録 10번째 이내로 들어가 있었다.

世界の年鑑을 보면 自動車대수와 電話대수와 TV대수는 어느 時代(최근 10~15年 이래)나 그 保有대수가 엇비슷하다. 예컨대 美國의 1980年度 自動車대수, 電話대수, TV대수는 각각 1億 5,900만대, 1億7,300만대 1億3,700만대, 日本은 3,700만대, 3,700만대, 5,900만대이다. 나라마다 文化背景이 달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나 先進國에서는 이 3가지用品의 대수는 비슷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1990年代의 韓國도 그렇게 될 것이다. 先進隊列에 끼이게 되면 TV의 普及은 自家用 自動車나 電話대수와 마찬가지로 늘게 마련이다. 그래서 한집에 두대 세대씩 갖는 집안이 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自家用車를 갖는 것이 그리 큰 자랑이 못 되고, 電話를 所有하는 것은 보통이 되고, TV는 個人TV化 되어가게 된다.

個人 TV時代

個人TV란 무엇인가? 그것은 家族의 한사람 한사람이 제각기 自己의 TV를 갖는다는 뜻이다. 물론 어린애야 가질 수 없겠지만 學校다니는 아이라면 누구나 뜻만 있으면 손쉽게 사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 TV 보급률은 人口 1人當 63%, 日本은 54%나 된다. 韓國도 이제 20%線을 넘는 800만대

나 갖게 되었고, (家口數當으로는 이미 100%) 90年代가 되면 50%, 즉 人口 2名中 한명은TV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TV는 貴重品도 所重한 物품도 아닌 흔해빠진 日常用品으로 變해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화의 물결을 타 그 TV는 자꾸만 값이 싸지고, 小型化가 되고 多機能化되어간다. 한 때 라디오가 그랬듯이 이제 TV도 學生들 工夫房의 必需品目的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라디오 世代와 TV世代

라디오를 틀어놓고 工夫하던 世代의 存在가 엇그제 같더니 요새 國民學校學生들은 TV를 켜 놓고 工夫를 한다. TV도 보고 宿題도 한다. 그리고 이 두가지를 제각기 100% 成就까지 한다.

야단치는 아버지 命命에 할 수 없이 라디오를 켜지만 아들녀석은 이렇게 抗議했다고 한다. 「아버님, 라디오를 끄면 너무 조용해져서 不安해집니다. 그래서 工夫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 깜짝 놀랄 抗議內容에 舊世代 아버지는 정말로 깜짝 놀랐단다. 舊世代 사람에게 「라디오 聽取」와 「工夫하기」는 共存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젊은 世代는 「엘비스 플레슬리」의 록큰롤 뮤직이나 「비틀즈」의 정신없이 떠드는 노래소리를 背景뮤직으로 삼아 잘도 工夫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라디오 人間들마저 이력저력 30대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 라디오 人間마저도 TV를 보면서 숙제를 하는 超新式人間

들인 TV人間的 超能力에는 깜짝 놀란다. 마치 담배를 피우면서 冊을 읽을 수 있는 어른들 世代처럼 國民學校 어린이들은 TV를 보면서 힘든 算數工夫도 척척해낸다. 놀라운 同時處理 能力이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다가올 1990年代나 2000年代에는 우리 社會를 짊어질 中堅幹部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TV는 生活속에 깊이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포켓터블 TV

그리고 이와 같은 潮流에 맞추거나 한듯 이제 포켓 TV가 出現을 한다. 약 2年前 日本의 소니會社가 플랫 튜브(Flat Braun Tube)型的 포켓TV를 내놓았다. 그것이 작년에는 더 縮少化가 되었고 값도 싸졌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것을 더 改良한 第3世代的 포켓TV인 FD-20A라는 新型이 나오고 있다.

어른들의 안쪽 포켓, 바깥쪽 포켓, 또는 바지의 옆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 포켓 TV, 그 畫像은 이루 말할 수 없이 鮮明하다. 大型의 TV보다는 오히려 感度는 더 높다. 길이 약 40cm의 多段式 안테나를 길게 뽑아 놓기만 하면 방향에 거의 관계없이 깨끗한 畫面을 보여준다. 自動車안에서 들어봐도 鮮明한 畫質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南山터널 속에서만은 잘 안나타나지만 말이다, .

小型乾電池 4 개로 3時間을 연속해서 볼 수 있는 이 TV의 出現은 새 時代의 到來를 예고 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가격이 약 15萬원線이지만, 大量生産, 大量普及의 물결을 탄다면 10萬원 이하로도 내려갈 것은 틀림이 없다.

실은 포켓型 컬러TV는 이미 試製品이 나와 있다. 日本의 精工舍라는 時計製造業者가 夜晶表示의 컬러TV를 개발해내고 있다. 브라운管型에 비해 두께가 0.5cm정도 더 얇다. 빨강, 초록, 파랑의 세 컬러필터와 세 夜晶板을 이용해서 總天然色 畫面을 43.2mm×34.2mm(對角線 5.08cm)의 畫面に 비추어주고 있다. 아직은 商品化가

안되어 있고, 또 그 鮮明度는 브라운管型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이 흠이면 흠이다. 그러나 EPSON이라 命名된 이 TV는 16cm×8cm×2.8cm라는 얇고 조그마한 크기가 매력적이다. 그리고 畫素의 수도 6萬點이나 되어 조그마한 畫面用으로서 무척 鮮明하다.

그렇게 되면 매년 2月末이나 3月初의 入學 시즌이 되면 入學 선물로 날개 돋힌 듯 팔릴 것은 틀림이 없다. 아마도 教室안에 까지 이 TV는 密搬入되어 先生과 學生들 사이에 숨바꼭질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TV를 손에 들고 길을 가면서 野球競技나 蹴球競技 中繼放送에 熱中한 나머지 횡단보도에서 自動車에 치여 전치 2週인가 3週인가 負傷을 입는 학생이 나올 법도 하다.

한라산높이 또는 雪嶽山높이 올라간 登山隊員들의 돌도 없는 벼이 될른지도 모른다. 야외에 놀러갈 때도 出勤길 버스안에서도 포켓TV는 인기를 끌 것이다. 「왓」하고 온 버스안이 터질 듯 웃음소리나 歎聲이 터져나올지도 모른다. 아마 아침 出勤時間에 이주일氏나 구봉서氏가 우스운 이야기를 했거나, 또는 멀리 브라질에 遠征간 우리 蹴球팀의 기막힌 한풀이 네트에 꽂힌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學生들이 현재 포켓 라디오를 갖고 다니듯이 모든 學生들이 포켓TV를 갖고 다니는 時代가 이제 치달려오고 있다.

液晶表示의 포켓컬러TV

이 포켓TV가 컬러화되어 總天然色이 될 날도 머지 않다. 아직은 黑白밖에 안 나왔지만 黑白에서 컬러로의 轉換은 그리 큰 문제가 없다. 다만 電子回路나 기타 部分이 약 3倍로 늘 뿐이다. 매 2년에 2倍씩 늘어나는 VLSI의 集積度 向上 傾向으로 보아 같은 크기의 體積속에 3배나 4배의 部分品을 넣어두기는 그리 힘이 들지 않다. 4년이면 集積度는 4倍로 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그 중의 2年是 지나고 있다. 머지 않아 鮮明한 畫像의 「포켓 컬러 TV」

가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輕·小·薄의 時代

日本에 이어 英國도 비슷한 機能의 TV를 개발하고 있다. 英國病이나 尖端技術開發에 성의가 없느니 또는 사양길을 걷는다느니의 批判을 받는 英國이고 보면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왜 다들 이렇게 법석을 떨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時代가 그것을 要請하고 있기 때문이다.

家財의 하나, 財産目錄 10號 이내의 重要動産의 하나에서 벗어나 TV는 이제 個人化 되어갔고, 악세서리화 되어 가고 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간단히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는 TV, 그것은 人類가 TV를 첫 개발했을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科學者들은 끊임없이 努力을 해왔고, 그리고 드디어는 그것을 成就할 수도 있었다.

라디오가 그랬고, 桌上計算機가 그러했었다.

사실 1940年代만 해도 라디오는 쌀계짜만큼이나 컸었고, 주먹만한 크기의 眞空管이 4개만 들어 있어도 슈퍼헤테로다인이나 해서 그 인기가 대단했었다. 그리고 값도 무척 비쌌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성능의 라디오는 가락지크기로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스피커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을 뿐이다. 스피커는 直徑 3cm 정도 이하가 되면 짹 짹 高音 소리만 나오고 低音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어폰을 쓰려들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桌上計算機도 마찬가지였다. 옛날의 그 무겁고 요란했던 Tiger나 Monroe 電氣計算機를 대체해서 電子式桌上計算機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크기는 꼭같이 大型 타이프라이터 크기였지만 소리가 전연나지 않았고, 計算速度는 눈깜박할 사이였다. 1964年境의 일이다. 그리고 그 값은 2,500弗 정도였다. 小型美製自動車가 2,500弗 하던 時代의 이야기이다.

그 電子式桌上計算機는 이제 명함 크기로 작아지고 있다. 銀行 現金카드나 百貨店の 크레딧카드와 크기가 같다. 그러면서도 옛날 초창기

의 2,500弗이나 하던 桌上計算機와 機能면에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값도 단돈 20弗 정도이다. 더구나 그 어떤 것은 아모르퍼스 太陽電池를 電源으로 쓰고 있어 50룩스(50와트 電球에서 1m 떨어진 곳의 밝기) 정도의 밝기만 되어도 充電이 되어 機能을發揮한다.

88서울 올림픽에 對備하는 길

尖端技術의 發達이 이 모든 것을 可能케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TV의 차례가 된 것이다.

그 縮小化에는 섬세한 손재주와 訓練된 두뇌가 필요하다. 多幸히도 우리는 이 두가지를 다 갖고 있다. 國際技能올림픽에서 連이어 5連覇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세번째로 64K D RAM을 大量生産하는 技術을 개발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다만 하려고 하는 意志가 문제이다. 多幸히 政府는 재작년 이래 수차에 걸쳐 技術振興擴大會議을 열어 尖端技術 開發政策을 펴나가고 있다. 研究開發費의 對 GNP比率을 1991년까지 先進國水準인 2%以上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電子産業, 遺傳工學, 材料工學 등 여러 尖端技術 개발에 음으로 양으로 多大한 支援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도 電子産業 育成 및 尖銳化의 決意는 대단하다. 이 추세에 발맞추어 加一層의 開發努力이 要請되는 것이 電子分野이다.

더구나 86년에는 아시안게임, 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다. 30~40萬名으로 추산되는 外國觀光客에게 푸짐한 선물을 사가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品目중에 하나로 포켓형 TV도 들어간다.

아마도 얼마 안 있어 우리 技術陣도 포켓컬러TV, 와이셔츠 포켓용 컬러TV, 더 나아가서는 손목 컬러TV도 개발해낼 것이고, 또 개발해내야만 한다. 世界에게 우리의 尖端技術能力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 기다리던 機會인 88年은 이제 앞으로 4年후에는 틀림없이 오도록 되어 있다.